

# 낙농 산업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 임실엔치즈·낙농 지구, 전북자치도 농생명산업 선도지구 선정

임실엔치즈·낙농 지구가 전북자치도 농생명산업 선도지구로 지정됐다. 군은 농생명 산업을 집적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에 임실엔치즈·낙농 지구가 선도지구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저지종 젖소

앞선 5월 임실군은 임실엔치즈·낙농 농생명산업지구에 대한 신청을 마치고, 8월경 1차 발표 심사, 2차 현장 평가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위킹(운영), 생산·가공 기반 구축(유가공 관련), 산업화·마케팅, 체험관광 활성화 등을 집적화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농생명산업지구는 농생명지역의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R&D) 등 연관 산업을 집적화하고 전후방 산업 간 연계 성장을 도모하여 국가적으로 핵심 거점화하려는 것이다.

특히 '저지종 젖소'를 본격 도입해 고부가가치 유가공 제품 생산으로 낙농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입 개방에 대응한 국내 치즈 산업을 임실군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기반으로 개량, 미래 농생명산업의 전후방 기지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임실치즈는 한국 치즈의 발원지이자 상징이고, 11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 선정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와 유가공 및 치즈산업 기반의 발전 잠재력과 추진 역량이 확보되어 선도지구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실엔치즈·낙농 농생명산업지구는 우유 소비 감소, 2026년 수입산 유제품 무관세 도입으로 난관에 봉착한 낙농산업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낙농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군은 해당 지구 내에는 2029년까지 348억원을 투입해 혁신 체계 및 네트

세부 내용으로는 홀스타인 젖소 대비 분뇨배출량이 66%이고, 고단백·

고지방 원유를 생산하는 저지종 젖소의 보급 사업과 낙농가, 유가공업체, 임실치즈연구소, 임실엔치즈푸드, 임실치즈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유제품 생산, 개발, 가공, 유통, 체험관광의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선정된 선도지구는 12개 시군에서 19개 지구가 신청한 가운데 임실군을 포함해 남원(에코(ECO) 스마트팜), 정수(저탄소 한우), 임실(치즈), 고창(김치), 익산(동물의약품), 진안(홍삼), 순창(미생물) 등 7개 지구가 선정됐다.

전북자치도는 7개 선도지구가 실행 계획 보완,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대로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고시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최근 사료 가격 폭등 등으로 낙농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낙농·유제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실 치즈 산업을 범국가적인 우수 농생명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최영일 순창군수는 19일 긴급 방역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버뮤구 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 버뮤구 방제 전방위적 대응 나서

### 최영일 순창군수, 긴급 대책 회의 갖고 대처 방안 집중 논의

최영일 순창군수가 버뮤구 급증에 따른 버 재배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발 빠른 현장 중심 행정을 펼치고 있다.

19일 군에 따르면, 현재 순창군 구립면을 중심으로 554.5ha에 버뮤구가 발생한 상황으로, 이는 연일 계속된 폭염으로 인해 밀구류의 밀도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최 군수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 지역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특히 연휴가 끝난 19일에는 순창지역 4개 농협 조합장, 11개 읍면장, 읍면별 농가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방역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버뮤구 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군은 회의 결과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버뮤구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고 24시간 핫라인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순창군 전체 버 재배지역을 대상으로

순창군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지역농협 등이 협력해 다음주 내에 방제를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는 버뮤구 방제 기술 교육을 긴급 실시해 농가들의 대응 능력을 높이고, 더불어 인근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방역 체계 구축, 버뮤구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아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미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방역 효과가 높은 버뮤구 전용 약제를 배대 아래까지 충분히 뿌릴 수 있도록 안내하고 수확기 전 예방 강화와 수시 방제 등 기술 지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전 농가 완전 방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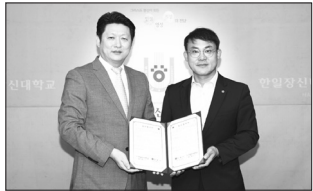
최영일 군수는 "순창의 농업이 위기에 처한 지금이야말로 행정과 농민이 하나 돼 대응해야 할 때"라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이번 버뮤구 사태를 극복하고, 농가의 소득을 지키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한일장신대, 자원봉사 활성화 '맞손'

### 남원 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에 100여명 학생 자원봉사자 참여

남원시가 19일 한일장신대학교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력·지원 △대학 자원봉사센터 협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관학 연계 자원봉사의 우수 사례 발굴·보급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남원시는 지난 2018년 서남대학교가 폐교됨에 따라 지역 내 대학이 사라지면서 젊은 세대 봉사활동이 침체되자 이를 활성화하고자 나선 것이다.

협약식은 한일장신대학교에서 민선 8기 남원시 부시장과 배정찬 한일장신대학교 총장 등 여러 관계자가 자리한 가운데 열렸다.

양 기관은 협약에서 △기관 간 상호

남원시-한일장신대학교 간 자원봉사 교류·협력의 첫 시작으로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남원 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에 100여명의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전주대, 광주대 등 전국의 여러 대학과 업무협약을 맺어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최경식 시장은 "남원을 찾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교육, 문화공연 등 다양한 전공을 살려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관심 있는 군민 누구나 가능하다. 참가비는 1인당 14만 원으로, 교통비, 식비, 프로그램 운영비, 차량 임차료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군민은 순창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군, 군민행복 통행열차 참가자 선착순 모집

순창군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아 추진하는 '2024년 군민행복 통일열차' 참가자를 19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이번 행사는 군민들에게 안보현장 견학 기회를 제공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군민행복 통일열차'는 오는 11월 1일 광주역에서 출발해 경기도 파주시 DMZ 인근 지역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군민 300명을 대상으로 순창군 거주자 중 남북교류 및 통일에

## 남원시보건소, 어린이 2차접종자 대상 독감 예방접종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2024년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감염 유행 차단을 위해 먼저 어린이 2차접종자를 대상으로 20일부터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을 시작한다.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는 11월~이듬해 4월로 예방접종 효과 지속기간 평균 6개월을 고려하여 10월~11월이내 접종을 권장하고, 단, 2회 접종이 필요한 소아의 경우 적절한 면역 획득을 위해 9월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어린이 2회 접종자 대상자는 9세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접종이 생애 처음인 경우이며, 4주간격으로 총 2회

접종하게 되며, 시기는 20일부터 지정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무료로 가능하다. (보건소 미취학아동은 오전 9:00~11:30)만 가능)

또한 미성년자 접종은 보호자가 함께 동반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보호자 동행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보호자가 작성한 시행동의서 및 예진표를 소지하고 방문하면 된다.

한용재 남원시보건소장은 "소아의 경우 집단생활로 인해 전파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며,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가급적 이른시기에 접종을 완료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통

### 남원하수처리장·월락 정수장 견학프로그램 운영

남원시가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 월락정수장과, 각 가정에서 발생한 하수를 처리하는 남원하수처리장에 대한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견학 대상 및 내용에는 관내 초등·중학생을 대상으로, 월락정수장에서는 정수장과 배수지의 주요 시설물 및 수돗물의 정수과정, 각 가정의 공급경로 등에 대한 설명과 하수처리장에서는 하수처리 과정에 대한 홍보영상 시청 및 현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견학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금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이며, 정수장 견학은 월락정수장(063-620-6897), 남원하수처리장(063-620-5825)으로 사전에 전화나 공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향가무인공방 예술강좌체험 무료 운영

순창군이 21일부터 오는 10월 27일까지 매주 주말 삼진강변 향가터널 입구에 자리한 향가무인공방에서 예술강좌체험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강좌 프로그램은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 체험할 수 있으며, 요일마다 토탈공예, 천연염색, 매듭짓기 등으로 체험프로그램이 예정돼 있어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단, 재료 소진 시 체험이 조기마감될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 9월 정기본 재산세 34억원 부과

임실군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올해 9월 정기본 재산세 34억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건축물본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특히 주택본 재산세는 산출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게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